

	<b>보 도 자 료</b>		작성과 (의회운영전문위원실)
	<b>2017년 5월 17일(수) 배포 즉시</b>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담당자 홍철표 주무관
			연락처 044-300-7411

**세종시의회, 제3차 “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” 개최**  
**-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살펴 -**

세종특별자치시의회(의장 고준일) “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(대표 김정봉 의원)”은 17일 세종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(주)쌍용C&B, 한화L&C(주)엘텍 세종사업장과 대규모 건설사업장 등을 방문했다.

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봉 대표의원, 서금택·정준이 의원과 최충식(대전충남시민 환경연구소장), 정종관(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), 김재주(환경정책과장) 등 6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,

연구모임 회원들은 (주)쌍용C&B 및 한화L&C(주)엘텍 세종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법적기준, 관리기준, 배출농도 등 처리현황을 살펴보고,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가동 상태 및 운영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·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.

특히, 4-1생활권 M1블록 대규모 건설 공사장(세종시 반곡동)에서는 주요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(야적, 실기 및 내리기, 수송 및 이송) 발생억제조치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 등 주변 환경실태를 확인하였다. 아울러, 비산먼지 주요 억제조치로는 △방진벽·방진막 설치, △세륜·세차시설 설치 및 운영, △작업시 살수, △수송시 적재기준 준수 및 적재함 덮개 철저, △이송시설 밀폐 등이 있다.

김정봉 대표의원은 "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, 사업장 자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배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는 능동적인 방식도 세종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."라고 주문했다.

첨부 : 관련 사진(연구모임 사진.jpg) 별첨

(사진 설명 : "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"을 하는 회원들의 현장방문 모습)

※ 관련사진은 5월 17일 15시 경 송부 예정